

정간공 권희 영정 제작 회의 개최



권오창 화백이 권율도원수 표준영정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간공(靖簡公) 권희(權僖, 15세, 추밀공파) 영정 제작 회의가 5월 20일 11시 종로구에 위치한 동강권오창 화백 연구실에서 권병돈 정간공 종종 회장, 권오훈 대종회 문헌편찬위원장, 권혁원 이사, 권오열 정간공 종종 감사, 권혁운 강릉종친회장, 권병돈 창수공 종종회장, 권태관 매현공 종종 회장, 권의철, 권순구, 권오달, 권오창 화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병돈 정간공 종종 회장은 2018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영가군 정간공 표준영정을 제작하기로 확정했다. 정간공은 15세로 흥건적이 쳐들어와 공민왕이 안동으로 봉진 갔을 때 문신이었지만 개경에서 흥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을 탈환하는 등 려말선초에 대단히 큰 활약을 했던 문무를 겸전한 선조이시고, 안동권문의 사시(四始)인 기로지시(耆老之始), 문형지시(文衡之始), 호당지시(湖堂之始), 족보지시(族譜之始)가 정간공 후손에서 시작되었다. 묘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간공 영정을 제작하여 호국정신과 시민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표준영정을 제작하려는 것이다. 라고 영정 제작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권오창 화백은 영정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3명이 심의를 하는데 먼저 표준영정을 그림만큼 선현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적, 공적 등이 선현의 반열에 드는

나를 제일 먼저 심사한다. 그리고 관복, 사모 등 미술사적으로 맞느냐, 골상이 유전적인 측면에서 잘 표현됐느냐 등을 심사하는데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초본을 심사한 후 심사가 통과되면 채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권오창 화백은 표준영정은 당대 기법이 미술사적으로 잘 표현되어야 하고, 사상, 행적, 시대적인 것이 잘 나타나야 한다. 표준영정은 전신상, 좌상 등이 있고 어떤 의자에 앉느냐도 중요하다. 영정의 크기는 107×180cm가 표준이다.

권혁운 강릉종친회장은 가장 염려스러운 게 문광부 심의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단종, 권율도원수 등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정간공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분들이 인정해 줄 것인지 그게 관건이다.

이에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은 그래서 고양시청에 설득할 방안이 필요하다. 민원을 제기하면 고양시에서 문제부에 신청하고 문제부에 가서 신청하는 절차이다.

권병돈 정간공 회장은 심의 신청을 위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문제부를 설득 시킬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작업을 권오훈 총장이 혼자 해왔다.

권오창 화백은 권율도원수 영정이 이달 말경 완성되고 6월 말 경에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영정 제작이 어떻게 제작되는

지에 대해 제작 중인 권율도원수 영정을 잠깐 보여주며 설명했다.

회의는 1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간공 표준영정 제작 계약까지 체결하였다. 권병돈 정간공 종종 회장과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 권혁원 이사, 권오달 등은 식사를 마치고 권혁원 이사가 기증한 국자공(菊齋公, 13세, 추밀공파)의 묘비 탁본을 들고 인사동으로 향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오창 화백은 영정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3명이 심의를 하는데 먼저 표준영정을 그림만큼 선현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적, 공적 등이 선현의 반열에 드는

서문은 동북면 출신 이성계가 담당했고, 동문은 정간공이 맡았다. 이 전투에서 흥건적은 10만에서 살아 도망간 사람은 몇만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고려조에 이어 대해 밝혀진 게 없는 실정이다. 이때만 해도 정간공 집안은 당대의 일류집안이었고 함흥 동북면에서 온 이성계 집안은 시골 촌뜨기였다.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었다고 보면 된다. 정간공이 태조 이성계하고는 15살 차이니까 태조 이성계가 형님으로 섭겼다.

이어 권오창 화백은 표준영정은 당대 기법이 미술사적으로 잘 표현되어야 하고, 사상, 행적, 시대적인 것이 잘 나타나야 한다. 표준영정은 전신상, 좌상 등이 있고 어떤 의자에 앉느냐도 중요하다. 영정의 크기는 107×180cm가 표준이다.

권혁운 강릉종친회장은 가장 염려스러운 게 문광부 심의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단종, 권율도원수 등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정간공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분들이 인정해 줄 것인지 그게 관건이다.

이에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은 그래서 고양시청에 설득할 방안이 필요하다. 민원을 제기하면 고양시에서 문제부에 신청하고 문제부에 가서 신청하는 절차이다.

권병돈 정간공 회장은 심의 신청을 위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문제부를 설득 시킬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작업을 권오훈 총장이 혼자 해왔다.

권오창 화백은 권율도원수 영정이 이달 말경 완성되고 6월 말 경에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영정 제작이 어떻게 제작되는

지에 대해 제작 중인 권율도원수 영정을 잠깐 보여주며 설명했다.

회의는 1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간공 표준영정 제작 계약까지 체결하였다. 권병돈 정간공 종종 회장과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 권혁원 이사, 권오달 등은 식사를 마치고 권혁원 이사가 기증한 국자공(菊齋公, 13세, 추밀공파)의 묘비 탁본을 들고 인사동으로 향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오창 화백은 영정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3명이 심의를 하는데 먼저 표준영정을 그림만큼 선현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적, 공적 등이 선현의 반열에 드는

동정

▲ 권종순 (유)영가실업 대표이사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협회(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가 2021년 12월 22일 '2021 중소기업경영 혁신대회'에서 대통령표장을 수상했다. (유)영가실업은 소재·부품 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에 나서 중소 기업 경영혁신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권종순 대표이사는 경기도 김포 대곶 면에서 영가실업을 건설하게 경영하며 지역의 각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인이다.

▲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에 사는 권숙자(55)씨가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효행부문 대통령표장을 받았다. 권숙자씨는 자신도 2차례의 암 수술을 받았고 3남매를 키우는 어머니지만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84)의 암부병을 위해 20여 년 동안 치료와 간병을 하고 있어 주변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권숙자씨에게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무색할 뿐이다.

▲ 권보라 영국 노동당 구의원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여 당당히 당선되었다. 2018년 한인으로서 처음 당선된 바 있는 권보라 의원은 이민 1.5세로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 소속으로 런던 서부 해머스미스 지역에서 출마하여 한국과 영국의 국가 배지를 달고 선거운동을 펼친 결과 한인들

이 영국에 진출한 이후 선출직으로 재선에 성공한 첫 케이스이다. 권 의원은 영국 명문 런던정경대 철학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2년간 지낸 바 있다.

▲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창작기초학부 권세실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국수상'에서 대학교육 분야 단독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온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교육상이다. 권세실 교수는 공연예술 관련 영어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과 세계적 청자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 권혁원 대종회 이사가 5월 1일 13시부터 16시까지 거행된 2022년 종묘대제에서 영녕전 제6실 문종대왕과 현덕왕후 재실 아현관으로 봉행했다. 종묘대제봉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종묘대제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화되어 실외에서 미리 예약한 제한된 인원만이 참가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 대학교 경비로 근무하며 주경야독으로 5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권진성 변호사가 이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출마의 변으로 권 변호사는 평화, 통일,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가 아닌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 권봉원 논산소방서 의소대 연합회장이 지난 4월 6일 충남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작년 4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소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2022년도 안동권씨 대종회 장학생 선발

대종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를 5월 11일 개최하여 지역종친회에서 추천한 장학생 대상자 중 지역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총 15명에게 권오록 고문이 대종회에 기탁한 현성금에서 각각 10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 지역 | 학교(학년) | 이름 | 용인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4) | 권윤지 |
|------|-----------------|-----|-----|--------------------|-----|
| 안동 | 고려대학교 자구환경과학(4) | 권구완 | 합천 | 경상대학교 글로벌비지니스(2) | 권인혜 |
| 전주원주 | 전주대학교 기계공학(3) | 권도혁 | 광주 | 전남대학교 지능형모빌리티융합(1) | 권정우 |
| 부산 | 전북대학교 치의학(3) | 권민지 | 경주 |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2) | 권제현 |
| 영등포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2) | 권세진 | 원주 | 한국대학교 정보통신(4) | 권주리 |
| 구리 | 경기대학교 법학(3) | 권수현 | 대종회 | 경희대학교 조리산업학(4) | 권주미 |
| 밀양 | 경상대학교 해양식품(4) | 권예린 | 강릉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4) | 권준한 |
| 산청 | 서울대학교 척물생명(3) | 권용재 | 일산 | 전남대학교 악대(5) | 권지현 |

권영세 안동시장 안동대 명예 경영학박사학위 받아

권영세 안동시장이 5월 17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권순태)에서 내외구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순태 총장은 "권 시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역혁신 일자리 모델인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출범시켜 지역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명예박사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권 시장은 "75년의 긴 세월을 안동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안동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동시와 안동대가 안동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을 이뤄나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시장은 지난 1977년 행정고시로



권순태 안동대 총장, 권영세 안동시장, 송채령 여사, 송희현 안동대 대학원장(왼쪽부터)

공직에 입문한 후 영양군수, 안동시 부시장,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내고 2010년부터 3선으로 12년 동안 민선 안동시장을 맡아 왔으며 다음 달 퇴임한다. 2020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현정대상 자치행정부문, 2021년에는 TV조선 경영대상 등을 받은 바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순한 (주)소이상사 회장, 한국외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권순한 (주)소이상사 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1월 4일(목),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 회장은 1983년 (주)소이상사를 설립, 방사선·의료기기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무역회사로 성장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수입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상, 보사부장관상, 무역의날 석탑산업훈장, 무역진흥상을 수상한 기업·경제인이다.

한국외대 스마트도서관 빌라아쿠쉬네트홀에서 진행된 이날 수여식은 김원명 대학원교학처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이재원 대학원장의 추천사, 김인철 총장의 수여사,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양인진 총동문회장의 축사 및 권순한 회장의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인철 총장은 "권순한 회장은 대한민

국 수출·무역의 역사와 함께한 장본인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였고,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8, 29, 30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문 간 소통과 화합,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며, "또한 코스타리카 명예영사로서 한국의 무역 발전과 공공외교에 큰 기여를 하신 바,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수여 배경과 축하를 전했다. 권 회장은 답사에서 "인생 드라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은 세계의 관문이자 글로벌 대학인 한국외대에 입학한 것이었다"며, "오늘의 이 명예가 세계를 누볐던 모든 외대인의 노고를 위로하며,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순한 회장은 1943년 봉화 안동에서 태어나, 197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 어과를 졸업하였다. 세계적 의료기기 선도



기업인 (주)소이상사 회장으로 있으며, 한국외대 28, 29, 30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였다. 무역·기업인으로서 민간 외교 분야에서 각국의 무역발전과 대외통상협력 활동에 기여, 대만 경제uttle, 이탈리아 기사작위훈장, 루마니아 산업최고훈장을 수훈하였으며 현재 주한 코스타리카 명예영사로서 양국간에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정간공 권희 영정 제작 회의 개최



권오창 화백이 권율도원수 표준영정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간공(靖簡公) 권희(權僖, 15세, 추밀공파) 영정 제작 회의가 5월 20일 11시 종로구에 위치한 동강권오창 화백 연구실에서 권병돈 정간공 종종 회장, 권오훈 대종회 문헌편찬위원장, 권혁원 이사, 권오열 정간공 종종 감사, 권혁운 강릉종친회장, 권병돈 창수공 종종회장, 권태관 매현공 종종 회장, 권의철, 권순구, 권오달, 권오창 화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어 권오창 화백은 표준영정은 당대 기법이 미술사적으로 잘 표현되어야 하고, 사상, 행적, 시대적인 것이 잘 나타나야 한다. 표준영정은 전신상, 좌상 등이 있고 어떤 의자에 앉느냐도 중요하다. 표준의 암 수술을 받았고 3남매를 키우는 어머니지만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84)의 암